

일본역사교과서왜곡시정 촉구결의안

의안 번호	966
----------	-----

제안년월일 : 2001. 4. 19.

제안자 : 박종원의원
외 13명

□ 주 문

- 2002학년도부터 사용될 일본중학교 역사교과서 중 임진왜란과 태평양전쟁 등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타국의 역사를 왜곡하는 등 일본국 중심주의적 사관으로 기술되어 있다는데 대하여 우리는 분노와 배신감을 금할 수 없음.
- 특히 일본의 새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라는 단체가 제작하여 검정이 통과된 역사 교과서는 일제침략을 정당화하여 아시아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민족해방 전쟁으로까지 미화시키는 등 역사를 광범위하게 왜곡날조하고 있는바, 이에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음.
- 따라서 검정이 통과된 일본의 역사교과서 내용 중 날조 왜곡된 부분들을 즉각 재수정 할 것을 강력히 촉구 결의함.

□ 제 안 이 유

- 아직까지도 위안부 보상문제 등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 없는 상황에서 최근 일본국 문부교육성 검정을 통과한 역사교과서는 과거 태평양 전쟁이 침략전쟁이 아닌 아시아 해방전쟁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제국주의 논리를 펴며 침략 전쟁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는 등 역사를 광범위하게 왜곡 날조시키고 있음.
- 일본의 이러한 역사교과서 왜곡은 일본의 군국주의에 피해를 당한 아시아 여러 나라에 대한 도전이며, 민주주의와 평화를 희구하는 세계 인류에 대한 배신행위임.
- 따라서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57만 안산시민과 함께 일본국이 왜곡된 역사 교과서를 즉시 시정할 것을 촉구결의함.

일본역사교과서 왜곡시정촉구결의문

- 2002년부터 사용될 일본의 중학교 역사교과서들이 과거사를 광범위하게 날조 왜곡하여 기술하고 있는데 대하여 우리는 분노와 배신감을 금치 못하면서 일본은 역사교과서 왜곡을 즉각 중단하고 날조 왜곡된 부분을 즉시 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 결의한다.
- 1. 일본이 위안부 보상문제 등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 없는 상황에서 최근 일본의 검정을 통과한 역사교과서는 과거 태평양전쟁이 침략 전쟁이 아닌 아시아 해방전쟁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제국주의 논리를 펴며 침략전쟁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는 등 역사를 광범위하게 왜곡날조 시키고 있는 바 이에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 1. 일본의 이러한 역사교과서 왜곡은 일본의 군국주의에 피해를 당한 여러나라에 대한 도전이며 민주주의와 평화를 회구하는 세계인류에 대한 배신행위이므로 이를 즉각 중단하고 왜곡된 역사교과서는 반드시 시정할 것을 촉구한다.
- 1. 우리는 차제에 앞으로 끊임없이 이어질 일본의 오만에 슬기롭게 대처하여야 할 것이며, 정부는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에 대해, 결연한 의지로 단호히 대처하고,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는 강력한 대응책 강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요구한다.
- 1.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57만 안산시민과 함께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의 시정을 강력히 촉구하며, 우리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일본 상품 불매운동을 전개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2001. 4. 21.

안 산 시 의 회 의 원 일 동